

가정교육학과 인성교육

이 연 숙(고려대 교수) · 채 정 현(한국교원대 교수)

유 태 명(경상대 교수) · 왕 석 순(전주대 교수)

이 은 희(원광대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고시된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a)을 보면 교육목표에서도 ‘바른 인성’을 추가하였으며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등도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배경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증가하고 그 양상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 이상의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현상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숙, 이광우, 박순경,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 백경선(2012)은 청소년의 문제를 지식 교육에 치중하여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적 역량’은 OECD 국가 중 2위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OECD 국가 중 35위로 저조하고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기에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 편중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정서적 압박이 되어 여가시간이 줄고 운동 및 수면 시간의 부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는 청소년 인성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청소년의 인성 문제는 통계적 수치에서 그리고 질적 양상에서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2년 1월 초등 4학년에서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3%의 학생이 "최근 1년간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십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임신, 학교폭력, 자살의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에서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외에도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노출 등의 가정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학교와 가정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이에 학교와 가정이라는 양날개를 가지고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2012년 7월 개정된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체·덕·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어, 도덕, 사회 교과와 학습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중심으로 보완하였고,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의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중학교 ‘학

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 (총 136시간)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가정교과는 일상생활의 장에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최선의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실천교과이기에 인성교육을 담당할 가장 적합한 교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정교과는 인성교육의 요소가 모든 내용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최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교과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교육학 분야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는지 고찰하고, 가정과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의 요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교육 현장에서 교수설계와 교육자료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둘째, 가정교육학계에서 인성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이를 기초로 인성교육을 위한 차기 교육과정 개발에 실제적인 지원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가정교육학의 전통적 내용 영역인 인간발달과 가족,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2009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 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을 조셉슨 연구소가 제안한 존중, 배려, 책임, 신뢰성, 공정성(정의), 시민성의 여섯 기둥 덕목(6 pillar virtues)을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을 위한 덕 목록

인성이란 영어로 심리학분야에서는 personality(인성 혹은 성격)로 철학분야에서는 character(인격)의 의미로 다소 다르게 사용된다. 심리학분야에서는 인성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성격(personality)'을 의미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는 가치 지향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인격(character)'를 의미한다(김태훈, 1997). 손봉호와 김해성(1997)은 카(Carr, 1991)의 책 'Educating the virtues'를 '인성교육론'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그의 책에서 인성이란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성'의 개념은 서양에서는 심리학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 반면 동양에서는 성리학이란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성리학의 인성이론에서 보면 인성을 '심(心)'의 개념에서 찾았는데, '심은 성(性)과 정(精)을 포괄한다'(心統性情)라고 설명한다. 성(性)은 본성(本性)을 의미하기에 인성이란 '타고난 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궁달화(1999)는 인성을 성품(性品)으로 정의하였는데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이며 성질을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바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성이란 사람의 마음과 사

람됨의 바탕을 말한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지, 정, 의로 구성되기에 인성교육이란 지, 정, 의의 심성을 교육하는 것이고 사람됨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준 외(2011: 17-19)의 연구에서는 인성을 도덕적 자질이 포함된 개인의 사고, 태도, 행동 특성의 의미로 사용함을 밝히고, 영어 표현은 character로 설정한 바 있다. 'Character'는 모종의 도덕적 자질을 의미하고 미국의 'character education'에서도 인성은 도덕적 성격을 내포하는 인격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에서의 인성은 도덕적 의미의 함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덕 윤리 학자들은 character는 습관, 성향, 태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덕이 있을 수도 부덕할 수도 있는 어떤 성향이나 특질을 의미하였다. 종합적으로 이명준 외(2011: 19)는 인성(character)을 “선천적인 것을 포함하면서도 후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적 역할도 개입된 안정된 도덕적 성향”으로 보았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만큼 좋은 인성과 덕 있는 인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인성교육이란 학습자의 타고난 심성을 발견하고 그 심성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꾸어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가 자기를 존중하여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과 사회도 존중하고 배려하여 모두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도적인 실천을 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인성교육의 구성요소와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Lickona(1992: 정미경, 2003 재인용)는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및 도덕적 행동을 인성의 구인으로 보았다. 도덕적 지식에 도덕적 인식, 도덕적 가치의 이해, 조망수용, 의사결정, 도덕적 추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며 도덕적 감정에는 양심, 자존감, 겸손, 감정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통제를, 도덕적 행동에는 능력, 의지 습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인성교육의 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에 따른 인성교육 구성 요소

연구자(연도)	인성교육 구성 요소(덕목)
허경철, 조난심(1994)	· 기본생활습관: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 위생, 물자절약 · 자아확립: 근면, 성실, 자주, 정직 · 효도와 경애: 기본예절, 효도, 경애 · 공동체의식: 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
김영화, 이혜영(1996)	· 효, 경로의식, 인내, 자기견제, 정직, 자주 및 자율, 질서 및 준법, 타인배려, 책임감, 협동, 공동체의식
조연순 외(1998)	· 민주시민의식: 준법정신, 봉사정신, 협동정신, 책임감, 정의감, 애국심, 환경보호의식 · 타인존중의식: 권위의 존중 및 수용, 예의범절, 효, 사랑, 배려, 정직, 신뢰 · 자기존중의식: 자신감, 자아수용, 자기표현, 자기통제
손승남(1998)	· 자기사랑, 덕, 타인이해·배려, 민주시민(질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국제이해(다문화이해 및 지구촌 의식), 건강 등
박효정 외 (2001)	· 경로효친, 정직, 절제, 근면·성실, 생명존중, 타인배려, 평등 및 인권존중, 공정성, 신의, 용기, 책임·협동, 애국·애족, 인류애, 공동체의식, 환경보호, 성윤리, 정보윤리
이호중(2001)	· 기본생활영역: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 · 개인생활영역: 정직, 근면, 성실, 자주 · 공동체생활영역: 기본예절, 경애, 효도, 준법, 질서, 협동, 타인존중, 봉사
최유현(2003)	· 존중성: 성실, 자기통제, 자아존중, 책임, 협동 자신감, 공감, 신뢰, 용기, 조화, 겸손, 공정, 관용, 배려, 정의, 정직, 준법 · 합리성: 문제해결, 의사결정, 창의·통찰, 논리, 분별, 초인지, 판단 · 감수성: 건강, 미, 사랑, 생명, 행복, 자연, 진실, 양심
왕석순(2004)*	· 평등 및 인권존중, 환경보호, 보살핌, 우애, 사랑, 희생, 양보, 대화
류청산, 진홍섭(2006)	· 자기: 자발성, 신중, 정직, 자부심, 성실, 일관성 적응, 청결, 환경보전의식 자아수용 · 타인: 공동체의식, 정중, 애국심, 인류애, 봉사정신, 질서의식, 관용, 기타(우애, 단결, 정, 존경, 겸손, 시민성) · 자기·타인: 진, 선, 중용, 생산성
강선보 외(2008)	· 관계성, 도덕성, 전일성, 영성, 생명성, 창의성, 민주시민성
현주 외(2009)	· 예절, 타인배려, 준법, 정직, 책임, 바른생활습관, 성실, 질서, 공동체의식, 협동, 자기 주도성, 생명존중, 정의, 관용, 용기, 독립성, 인내심, 열린 마음, 우정, 애국
문용린, 최인수(2010)	· 인간관계 덕목: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 인성판단능력: 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
박미정(2010)*	· 신뢰/정직/약속, 협동/배려/공정, 책임(감)/소유, 의사결정능력, 실천력, 자율성,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글로벌역량, 진로개발능력, 환경친화능력

참고: 왕석순, 김성교(2011)에서 재구성. *는 가정과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요소(덕목)

하지만 위의 덕목은 너무나 여러 가지 덕목이 위상과 체계 없이 배열되어 가정과 수업에서 접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대의 인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덕과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덕을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덕 윤리학자들이 강조해 온 자신과 타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을 대별하여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명준 외(2011)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조셉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e)가 제안한 존중, 배려, 책임, 신뢰성, 공정성(정의), 시민성의 여섯 기둥 덕목(6 pillar virtues)을 학교인성교육에 적절한 덕

목으로 평가하였다(표 2 참조). 조셉슨 연구소에서 제안한 여섯 기둥 덕목은 학생들에게 접근가능하다는 장점 외에도 인성교육 요소로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새롭게 등장한 배려교육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배려와 존중, 책임을 포함하면서도 사회적인 시민성, 그리고 전통적인 정의와 진실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요소로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 2>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 덕목

주요 덕목	하위 덕목	포함 요소
진실성	정직하기, 속이거나 훔치지 않기, 믿을만하기-약속하기,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요기 갖기, 좋은 평판 다지기, 충성-가족, 친구, 국가에 대해서	용기, 충성
존중	타인을 존중하기, 차이를 관용하고 수용하기, 예의를 갖추고 나쁜 말을 쓰지 않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기, 위협하거나 때리거나 상처 입히지 않기, 화냄, 모욕, 반대에 평화롭게 대처하기	관용, 인내
책임	할 일을 하기, 미리 계획하기, 끈기있게 해보기, 항상 최선을 다하기, 자기 통제, 자기 수양,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기, 책임있는 말과 행동하기, 좋은 모범이 되기	인내, 절제, 신중함
공정성	규칙대로 놀기, 차례를 지키고 공유하기, 열린 마음과 경청하기,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기,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	수용성 진실성
배려	친절하기, 공감을 갖고 배려하기, 감사표하기, 용서하기,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	
시민의식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동참하기, 협력,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기,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갖기, 투표하기, 좋은 이웃이 되기, 법과 규칙을 지키기, 권위를 존중하기, 환경을 보호하기, 자원봉사하기	자연사랑

2.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교육학의 방향

Brown과 Paolucci(1979)는 가정교과는 사명지향적인 교과이며 실천 교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존중과 돌봄 그리고 이타적인 성숙한 개인과 가족으로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범주를 기초로 하여 세 학문의 유형 즉, 순수 학문, 사명지향적인 학문, 해석적 학문 중 가정교육학은 가족을 돕는 사명을 지닌 사명지향적인 학문으로 분류하였다. 가정교육학은 교육을 통하여 가정학의 사명인 개인과 가족의 세 행동체계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를 구축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학습자들이 교육받은 자다운 인격을 지니도록 하는 데 그 사명이 있기에 인성교육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교과이다.

유태명과 이수희(2010)는 실천교과에서 실천 개념을 Habermas(1973)의 *Theory and Practice*를 기초로 고전적, 근대적, 하버마스의 실천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 실천학에서 실천(praxis)은 첫째로 선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 행동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의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선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의 추구에 있었다. 둘째로, 실천(praxis)은 사회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추구되는 정치적 활동이다. Praxis는 정치와 윤리의 내적 연관성 가운데서 수행되는 인간 활동으로 보았다. 셋째로, 실천

(praxis)은 실천적 지혜(phronesis)에 연결된 활동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신중한 사려성이다(김태오, 2006: 86).

근대적 실천(praxis)은 첫째로, 규범적 요소와 단절된 활동이었다. 근대에 와서 실천(praxis)은 고전적 실천학에서 강조해온 윤리성은 간과되고 그 어떤 수단도 권력유지나 생존보호란 유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정당화 되었다. 둘째로, 실천(praxis)은 기술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활동이었다. 근대 사상가들은 도덕적 조건이 아닌 생존이란 실제적 조건에 대해 묻는다.

하버마스는 고대 실천 개념에서의 과학성 결여와 근대 실천 개념에서의 규범성 무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적 실천(praxis)을 통하여 규범적 방향성과 과학적 엄밀성을 조화시켜 상호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김태오, 2006). 규범적 방향성은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언어 행위로부터 보장된다고 보았다. 모든 언어 행위에는 이해도달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고 이해에 도달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범적 개념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이해를 통한 이성적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적 실천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과학적 엄밀성은 ‘근거제시’와 ‘비판가능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토의로써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세의 실천 개념은 규범성이 무시되었기에 현대의 가정교육학이 지향하는 실천 개념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므로 실천교과로서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실천교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실천 개념을 지향하면 윤리적 행동, 정치적 행동, 실천적 지혜의 덕이 관여하는 행동을, 하버마스의 실천 개념을 지향하면 규범성과 과학성을 확보한 의사소통적 실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에 역점을 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개념에 기초하여 가정교육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phronimos)으로, 그 특성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에 관해서 잘 살필 수 있는 것”(NE 1140a)과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해서 참된 이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NE 1140b)이다. 김현주(2002)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성으로 숙고를 한다는 것과 윤리적 품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유태명(2007)은 가정과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문제의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최고의 선을 구체화하는 행동(praxis)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이때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최고의 선인 모두의 안녕이란 무엇인가와 이것을 위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참된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이치에 따르고 심사숙고-선택·결정-실천의 과정을 통하여 praxis에 이를 수 있는, 즉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잘 행동하고 잘 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phronimos는 실천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영역 중에서 개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것,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한 도덕적 행동, 보편적 상황뿐만 아니라 구체적 혹은 개별 상황이라는 실천적 영역에서의 행동, 인간의 최고의 선인 행복을 위해 가정과 교육에서의 궁극 목적인 모두의 안녕을 실현하는 것, 안녕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파악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지적 활동에 기초한 행동, 행동의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의 장인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재생산된다고 보았다. 생활세계는 개인, 사회, 문화의 요소로 구성되고 각각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체계가 비대하여 생활세계를 식민지화 시

키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은 타인과 다른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의 근원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규범을 만들어 가며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 생활세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힘은 생각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편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 배경과 맥락이 다른 구체적 상황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비판적 관점에서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해준다.

실천교과의 고전적 의미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타인과 다른 집단, 사회)과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는 행동, 행동의 지속성에 역점을 둘 수 있다. 하버마스의 실천의 의미를 기초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일상생활의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체계에서 인성교육의 요소를 다루고, 의사소통 체계를 통하여 자신, 타인, 다른 집단, 사회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생각과 관행에서 벗어나 이성적 행동에 이르도록 교육할 것이다.

허경철과 조난심(1994)은 인성교육의 지도원리로 통합적 접근, 지속성, 관계성, 자율성, 체험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가정교육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지, 정, 의, 행의 통합을 교과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며 특히 학교와 가정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교과내용과 활동을 통하여 생활과 통합할 수 있다. 도덕적 품성이 나타나는 행동은 일회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가 아니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의하여 습관화될 수 있을 때 일상생활의 장에서 좋은 인성에 기초하여 지속될 수 있게 된다. 가정교과에서 다루는 교과내용은 자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성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는 교과이다. 자율성은 가정교육학의 사명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인 스스로 자아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적 목적을 설정하고 그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에 가정교육학 철학의 중심에 놓여 있다. 체험의 원리는 실천교과라는 교과의 성격에 비추어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생활의 장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사고 능력은 생활의 장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때 신장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가상의 상황을 주고 생각하게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가정교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가정교육학이 인성교육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것이 필요하다.

3.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특성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교육과정은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왕석순, 2011). 구체적으로 ‘자기관리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과, 가정과학 과목의 ‘리더십’을 포함한 총 7가지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가정과목은 “가족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각종 범죄 및 자연 재해로 인해 정신 건강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인간애와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다루어 학습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인성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가정과목이 다른 과목과는 차별적으로 학습자의 심

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학습경험과 인성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고시하고 있는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 ‘양육을 통한 돌봄능력의 확대’, ‘진 생애설계를 통한 생활의 자립’, ‘다문화적 가치의 이해’, ‘주도적인 삶의 영위’, ‘배려와 나눔’, ‘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핵심적 주제들과 ‘자기관리능력 등을 포함한 총 7가지’로 고시된 핵심역량들은 학교 교육전체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핵심적 주제나 역량과 동일하다. 이것은 전체 학교 교육에서 가정과목이 교과교육의 목표 달성을 통하여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은 2009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교육체계이다.

<표 3> 2009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학교 1-3학년군 기술·가정		고등학교 일반과목 기술·가정
○ 청소년의 이해 · 청소년의 발달 ·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 가족의 이해 ·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 저출산·고령사회와 가족 · 사랑과 결혼 · 부모됨과 자녀 돌봄 · 자립적인 노후생활
○ 청소년의 생활 ·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구성 · 옷차림과 자기표현 · 주거와 거주 환경	○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공간 꾸미기	○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 건강가정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 배려와 나눔의 의·식·주생활
○ 청소년의 자기 관리 ·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 청소년의 소비생활 ·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 진로와 생애설계 · 진로탐색과 생애 설계 ·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자신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제 1차적인 공동체인 가족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의 관련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및 가족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 발달의 문제, 정체감의 문제, 소비의 문제, 교육관계의 문제, 진로 문제, 스트레스 문제 등등-를 폭넓게 다루면서,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주목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은 해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교육을 통한 개입이다. 모든 청소년 문제는 상호관련되어 있으므로 상호관련된 문제를 ‘생활’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힘(역량)을 기르게 하는 목표를 가지는 가정과목에서의 접근이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셋째,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생활의 기반인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가족의 안정과 성장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회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의 사명을 인식하게 하는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서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교육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전반에서 반영하고 있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애설계와 진로교육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문화적인 가치의 수용,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및 양육, 자립적인 노후생활의 내용까지를 전반에서 다루면서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도교과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신설하고 가정생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강화하면서, 청소년 개발, 가족의 성장, 나아가 청소년 및 가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학습내용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긍정성-배려, 나눔, 돌봄 등’의 철학을 이미 성격과 교육목표에서 강조하였는데, 가정교과 교육내용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정서와 행동’에서 더 나아가 긍정심리학이 최종 목적으로 설정한 ‘행복’이란 주제를 궁극적 목적으로 강조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인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문화’는 사회적 적응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인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교과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이러한 행복을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과가 아직 없다. 근본적인 것은 가정교과는 원래부터 이미 ‘행복’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어 왔으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How to Happy)’을 가르쳐 온 교과는 가정교과(왕석순, 2011)이다. 따라서 적응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인 인간 행복에 대해 다루는 가정교과는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로 전체 교육과정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Ⅲ. 가정교육학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인간발달 및 가족’영역과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습자의 타고난 심성을 발견하고 그 심성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꾸어지도록 돕는 과정”이므로, ‘인간발달과 가족’의 영역은 인성교육과 가장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왕석순(2012)은 2009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청소년의 이해’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대인관계, 자기조절의 생활역량이 함양되어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관리’영역에서는 자기조절, 협력과 리더십의 공동체 의식, 동기형성과 목표설정의 자기성취, 상황대처의 생활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분석하여, 가정과에서의 인간발달 영역과 관련된 수업에서 청소년이 학교폭력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환경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대항하여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인 생활역량이 개발될 수 있어서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은숙·조병은(201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나와 가족의 이해’단원의 수업을 통하여 중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집안일 참여의 변화를 수업 전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성역할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미분화 집단이 감소하고 양성성 집단이 증가하였고,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적 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안일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업 전보다는 수업후에 집안일에 참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혜정·조병은(2011)은 가정과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훈련이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키며, 갈등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집단-비교

집단의 사전 사후 설계 연구를 통하여 실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가정교과에서의 인간관계 관련 단원의 경우 수업 뿐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한 개입을 통하여서도 학습자와 관련된 개인의 인성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이종희·조병은(2011)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기의 성공적인 준비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여, 인문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후준비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에 대한 지식, 자녀로부터의 부양의식, 노후생활준비도, 노인복지서비스 정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가사실업계열 전문계 고등학생 보다는 인문계 공등학생이, 강식 수업보다는 실천적 문제중심수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미(2012)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가족돌보기’ 단원을 학습 한 이후, 친사회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즉 수업 전과 수업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의 타인배려(도와주기, 자선, 친절, 희생), 협동(합동, 책임감), 공감(동정, 관심, 연민, 위로)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는 가정교과의 학습이 미래의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과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증가하였고, 이들 변수가 친사회적 행동의 29.1%나 설명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친사회적 행동 함양에 가정과수업이 관련되며, 가정과수업을 통하여 학습자의 건강한 인간발달의 촉진으로 인성교육이 실천될 수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2. ‘자기관리와 소비생활’영역과 인성교육

자기관리와 소비생활영역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시간·스트레스와 인성교육, 소비생활과 인성교육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인성교육의 하위요소까지 포함하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은정과 이연숙(2009)의 연구에서는 시간, 여가, 스트레스 관리등이 포함된 자기관리 교육 단원의 교육은 죠셉슨 연구소의 인성교육 요소 중 ‘존중’ 혹은 ‘책임, 덕목등과 부분적으로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숙영(2004)연구에서는 우울 및 충동을 지닌 학생들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성교육은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중고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경숙·박미금, 2000)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스트레스에는 가정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져 인성교육 요소 중 ‘존중’ 요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1997)의 “전환시대 청소년의 소비문화와 인성교육” 포럼에서는 학교에서의 소비문화와 관련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진화 외 2인, 2012)에서는 중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인성교육 덕목 중 ‘존중’, ‘배려’와 관련된 요소가 강조될수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휴대전화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김영주 외 2인, 2008)에서도 인성교육과 올바른 소비생활 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와 신혜원(2012)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은 친환경적인 의복 구매행동과 같은 소비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청소년의 과소비 성향에 관한 연구(이은정 · 이형실, 2004; 이지혜 · 김정숙, 1997; 안영희 · 박영숙, 2000) 결과를 보면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은 인성교육과 연계되어 수행되는 것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의 윤리적 소비교육 경험과 행동에 관한 연구(정주원, 2012)에서는 청소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은 주로 정직하고 책임있는 ‘상거래 윤리적 소비행동’과 녹색구매 및 사용, 처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적 소비행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생활’영역과 인성교육

식생활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식습관과 인성교육, 가족식사 참여와 인성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한 식생활 영역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식습관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대부분이다. 연구 주제는 학생의 식품기호도와 성격 특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김진아, 2005; 민경수, 2005; 김혜성 · 김혜영, 2007))와 식습관과 인성특성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이향자 · 천중희, 1998; 배세정, 2004)로 이루어졌다.

가족 식사 참여와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었다. 연구 주제는 가족식사 참여와 심리상태를 조사한 연구(이영미 · 이기완 · 오유진, 2009), 가족식사 참여도와 인성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김미선, 2011), 그리고 가족식사 참여도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조영주, 2007)가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식생활 영역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문성희와 채정현(200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천적 추론을 적용한 식생활 영역 수업이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정남용(2011)은 초등 실과교과 중 균형잡힌 식사하기, 간단한 조리하기 등의 식생활 영역에서의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인성과 창의성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고영진과 김영희(2012)은 실천 문제 중심의 녹색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식생활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4. ‘의생활’영역과 인성교육

현재 초·중등 교과활동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과별로 담당할 인성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주로 도전 및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교과서와 교수법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변화를 반영하여 가정교과에서 의생활 영역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및 효과와 의생활 문화 인식 고취를 위한 가치교육과 관련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윤미(2010)는 박물관 전통 의생활 교육이 문화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지닐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반윤자, 김남은, 이혜자(2011)는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전통 의생활 문화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통문화', '한복의 변천사', '한복의 색채', '한복의 문양과 소재', '한복의 세계화'의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김성교와 왕석순(2011)은 중학교

의생활 단원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감사 성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본 결과 효과적임을 도출하였다. 이승해(2012)는 고등학교 의생활 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의생활 문화’의 교육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미래문제해결프로그램(FPSP)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수업을 실행 한 후 학습자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습자의 흥미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배현영(2012)은 문화예술교육과 경험을 중심으로 중학교 의생활 교육 수업설계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의생활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 콘텐츠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 배양이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시대의 요구, 학습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와 중학교 의생활교육 개선에 대한 교과교육의 요구가 있음을 인식을 전제로, 현대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체제와 의류학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생활이 문화예술임을 재조명하여 의생활 영역의 교육이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에서도 연구되고 교육되어야 함을 보다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결국 의생활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5. ‘주생활’영역과 인성교육

가정교육에서 주생활 연구는 ‘인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으나 ‘유니버설 주거’, ‘코하우징’ 등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생활 교육 내용 및 성취기준이 인성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과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설 주거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실행해본 결과, 학생들은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주생활에서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유니버설 주거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영미, 조재순, 2001; 김유니, 조재순, 2010).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는 코하우징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실행해본 결과, 학생들은 이웃과 마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을 위한 공동체 의식 및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라, 조재순, 2010; 박희정, 조재순, 2009).

학생들은 개인, 가족, 이웃, 지역사회, 환경이 끊임없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 하는 주생활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습득하고 배려와 나눔 및 올바른 시민의식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에서 제시한 인성요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교육에서 주생활영역은 인성교육의 가능성이 충분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주변 환경 및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교육의 내용이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때 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궁극적 과제는 학생들의 마음을 선(善)하게 배양 하는 것이므로(이명준 외, 2011), 가정교사들은 학생들의 주변 환경과 실정에 맞는 주생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선(善)한 마음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요소 분석

2009개정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전통적인 5개 내용영역을 중심으로 조셉슨 연구소에서 제시한 Six Pillars of Character의 여섯 가지 덕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요소와의 관련성

교육과정		인성교육 요소(조셉슨의 6기둥 주요 덕목)						
대단원	중단원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	●	◎	●	●	◎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르며, 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인간관계인 동성 및 이성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	●	●	●	●	●	◎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구성	아침 결식, 다이어트, 인스턴트식품 선호, 섭식장애 등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생활을 반성 및 평가해 보고, 청소년기의 영양 섭취 기준,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 등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	●	◎	◎	◎
청소년의 생활	옷차림과 자기표현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 및 생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	●	●	◎	◎	●	●
	주거와 거주환경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인 주거의 의미와 다양한 주거유형을 이해하고 가족의 형태, 가족 생활주기, 생활양식 등 가족의 특성에 알맞은 주거를 선택하기 위한 안목을 기르며, 주거선택과 관련하여 근린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한다.	◎	●	◎	◎	●	◎
청소년의 자기관리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청소년의 시간 및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상황 및 생활문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		○	

<표 4> 계속

		교육과정	인성교육 요소(조셉슨의 6기동 주요 덕목)					
대단원	중단원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 의식
청소년의 자기관리	청소년의 소비생활	청소년기의 소비 특성 및 소비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탐색하여 자기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	●	●	◎	●
가족의 이해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족	저출산·고령 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 형태, 기능, 가족생활주기, 가족가치관 및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이해하고, 양성평등 및 세대 간의 조화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	●	◎	◎	●	●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고, 이를 친구, 교사, 이웃 등 다양한 관계에 적용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	◎	●	●	◎
녹색가정 생활의 실천	녹색 식생활과 음식만들기	녹색 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여 식품의 구매부터 소비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환경, 건강, 배려의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영위하며, 음식 만들기를 통해 감사, 배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	●	●	●	●	●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의복선택 및 구입방법을 이해하고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과 보관을 통해 청결한 의생활을 유지하며 의복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여 옷 고쳐 입기와 의복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	◎	◎	●	●
	지속가능한 주거 공간 꾸미기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위한 공기, 열, 빛, 소리 등을 고려하고, 공간구획과 동선, 가구배치 등 공간을 다목적,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주거 공간을 개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속 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	◎	●	◎	●	●
진로와 생애설계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생애 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애주기 관점과 경제적 자립 관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다	◎	○	●	○	○	◎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서비스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생활복지서비스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	●	●	●	●

1. ‘인간발달 및 가족’영역

‘청소년의 발달’ 중영역에서는 좋은 평판을 다지며,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관용하고 수용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공감을 갖고 배려를 보여 줄 수 있는 인성을 키우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자기통제를 하는 것, 협력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덕목과 관련된다.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중영역은 시민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성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특히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동성 및 이성친구 관계의 교육내용을 다루면서 타인을 존중하거나 예의를 갖추는 것, 친절하고, 배려를 보이는 것, 열린 마음과 경청하기를 통한 공정하게 친구를 대하는 마음, 2차 성징 발현에 따른 책임있는 성행동의 중요성,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족’ 중영역에서는 진실성과 존중, 배려, 시민의식과 관련된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출현하는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이를 수용하여 존중하며, 공감을 갖고 배려를 보여줄 수 있으며, 감사를 표하거나 용서를 표하는 것, 가족에 대한 충성 및 지역사회의 이웃에 대한 충성, 협력의 인성을 키우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요소를 다루면서 시민의식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수행할 수 있다.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중영역에서는 진실성, 존중, 공정성, 배려에 포함된 다양한 하위덕목들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타인 존중이나 배려, 정직성, 공정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성은 가족에서 학습하게 되는데,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요소를 가지는 이 중영역의 학습은 인성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된다.

가족복지와 관련된 영역은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에서 파생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중영역은 ‘책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다양한 하위덕목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영역이다.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복지서비스’영역에서는 죠셉슨의 6가지 주요 덕목 모두와 관련된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21세기의 모든 남, 녀는 직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한 태도와 행동, 책임있는 태도와 행동,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정한 태도와 행동이 기본이 된다. 따라서 이 여섯 가지 주요 덕목에 포함된 모든 하위덕목을 이 영역의 학습과정에서 다루게 된다. 또 ‘가족복지’의 내용은 시민의식을 기르는 주요한 인성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복지서비스’영역은 청소년의 책임과 진실성, 공정성, 시민의식과 관련한 다양한 덕목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과 관련된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식과 자기통제, 자기수양, 좋은 모범이 되는 것 등과 관련된 다양한 책임의 하위덕목을 기를 수 있는 인성교육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은 인성교육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관련한 진실성과 책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공정성, 또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요소들과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주의나 가족이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도록 이웃과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책임있게 돌보며, 이를 친구와 이웃, 사회로 확대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 인성교육의 덕목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한 발달은 물론 사회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성교육이 청소년의 가장 친숙한 자신의 생활과 가족의 생활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역임을 시사해주었다.

2. ‘자기관리와 소비생활’영역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관리’ 부분은 조셉슨 연구소의 인성교육의 여섯 기둥 덕목요소 중 ‘책임’ 덕목 교육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성취 기준에 나타난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으며~’와 ‘자신의 상황 및 생활문제를 평가하여 해결~’ ‘책임’ 덕목 중 할 일 할 것, 끈기있게 해볼 것, 자기통제, 자기수양 덕목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 관리 방법은 ‘책임’ 덕목의 할 일을 할 것, 미리 계획할 것, 끈기있게 해볼 것, 자기 통제, 자기 수양,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할 것 덕목의 인성교육이 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방법은 ‘책임’ 덕목의 자기 통제, 자기 수양,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할 것 덕목과, ‘존중’ 덕목의 차이를 관용하고 수용하기, 화냄·모욕·반대에 평화롭게 대처할 덕목과, ‘배려’ 덕목의 감사를 표할 것, 용서할 것과 관련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소비생활’부분은 조셉슨 연구소의 인성교육의 여섯 기둥 덕목 요소 중 ‘시민의식’ 덕목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소비특성과 소비환경’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 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동참할 것, 환경을 보호할 것과 ‘책임’ 덕목의 책임 있는 말과 행동, 좋은 모범이 될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 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동참할 것,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할 것,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것 덕목과 연관 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책임과 소비자문제의 해결 절차와 방법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동참할 것, 협력,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할 것,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것, 좋은 이웃이 될 것, 환경을 보호할 것과 ‘책임’ 덕목의 책임 있는 말과 행동, 좋은 모범이 될 것 덕목과 관련된 인성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하는 성숙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상품의 구매, 사용, 폐기 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은 ‘시민의식’ 덕목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동참할 것, 협력, 지역 사회의 일에 참여할 것, 환경을 보호할 것 덕목과 ‘책임’ 덕목의 책임 있는 말과 행동, 좋은 모범이 될 것과 관련된 인성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관리와 소비생활 영역과 조셉슨 연구소의 인성교육의 여섯 기둥 덕목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영역은 ‘책임’ 덕목 인성교육과 많은 관련이 있고 ‘존중’과 ‘배려’ 덕목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영역은 주로 ‘시민의식’ 덕목의 하위 덕목의 인성교육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책임’ 덕목의 하위 덕목을 위한 인성교육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식생활'영역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중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어서 '식생활' 영역에서 학생과 가족의 건강만을 생각하는데서 벗어나서 타인과의 관계, 사회, 더 발전적으로 인류, 자연, 생명에 이르기까지를 고려하게 하여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에 대한 인성 교육을 골고루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생활' 대영역에서는 식생활을 통한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인성 영역 중 자기 존중과 책임을 특히 강조하였다.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아침 결식, 다이어트, 인스턴트식품 선호, 섭식 장애 등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식생활을 반성 및 평가해 보고, 청소년기의 영양 섭취 기준,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 등을 활용하여 균형 잡힌 건강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이다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식생활 문제가 진실성, 자기 존중과 책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찰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식생활의 문제가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비판하여 개인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해서 공정한 식품 유통과정이 필요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시민참여 의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진실성, 존중, 책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의 대영역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 친화적인 가정생활 영위능력을 기른다"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식품의 구매부터 소비까지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고 명시하여 식생활 영역의 교육을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위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개인의 존중에서부터 시민의식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중영역은 '녹색식생활과 음식만들기'이며 성취기준은 "녹색 식생활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여 식품의 구매부터 소비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환경, 건강, 배려의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영위하며, 음식 만들기를 통해 감사, 배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 모두의 인성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녹색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식생활을 의미한다(기획재정부 외, 2010). 녹색 식생활 교육의 핵심가치는 환경, 건강, 배려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공정성,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하는 시민의식,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영역에서 학생들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에 대한 자부심(존중)을 느끼며, 음식 만들기를 통해 감사, 배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즉 음식 만들기를 체험하여 음식을 제공한 농부와 매일 음식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와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성된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진실성을 갖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인성교육의 전 요소인 진실성,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의생활'영역

가정과교육에서 의생활 교육은 주로 섬유, 실, 옷감에 관한 의복재료와 의복구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의생활교육은 부족한 수업시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바느질 교육(sewing)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의생활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의생활 교육에서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s)와 더불어 인간과 그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의생활 교육내용이 생활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보다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삶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에 더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최근에는 의생활교육을 가치교육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전통 생활 문화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가정과에서 전통 생활 문화 교육은 문화 교육적 측면, 교과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전통 문화의 산업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구축해온 독특한 나름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학교나 학습공간에서 실제적 과제의 수업을 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형성해간다는 것과, 의생활의 지식과 기술은 섬유와 직물, 의복과 관련된 실제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 의생활의 섬유·직물·의복을 디자인하고 다양하게 제작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의생활교육을 문화예술활동으로 정의(배현영, 2012)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가정과 교육내용 중 인간의 가장 근접 환경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의생활교육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의 사회에서 혼돈과 단절된 내용이 아닌 서로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좀 더 상호관계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생활교육은 인성교육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가치를 인성교육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의생활 교육내용이 제시된 8학년에서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교육 영역은 전체 6개 대영역(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생활, 청소년의 자기관리, 가족의 이해,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진로와 생애 설계)의 15개 중영역 중, 2개 대영역(청소년의 생활, 녹색가정생활의 실천)하에 2개 중영역(옷차림과 자기표현,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생활' 대영역에 옷차림과 자기표현의 중영역이,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이라는 대영역에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의 중영역이 포함되어서 구성되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에서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때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 및 생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를 제시함으로써 배려, 예절 등과 같은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5. '주생활'영역

가정과교육에서 '주생활'영역은 '주거와 거주환경'과 '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주생활은 다양한 가족의 가치와 외부환경(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주거 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교육의 주제로 하고 있어 인성교육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와 거주환경'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실천'에 있다. 여기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공존의 가치를 말한다. 공존의 가치는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관용적 자세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존중과 배려를 통해 형성된다. 즉 주생활교육에서 노인과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이 서로 다른 형태의 주거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나타나는 주생활에서의 다양성을 포괄적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와 다른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용적 자세를 기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에서는 주거 공간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공간 활용 방법의 이해를 통해 기존의 건강한 성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 공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노인의 자립적 생활과 신체적 활동 장애에 대한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주생활에 있어 가족 돌봄에 대한 개인의 책무성과 가족 및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시 되면서, 유니버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조재순, 2001; 김유니, 조재순, 2010).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중영역의 성취기준은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에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사회적 조화와 경제적 균형을 전제하는 환경 보전의 개념을 포괄하며, 이는 정의/공정성, 시민의식을 통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규범을 형성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Portes, 1998). 따라서 주생활교육에서는 주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거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협력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개인과 가족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과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적 의존관계를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협동과 나눔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의 자발적 의도와 적극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 효율성이 증가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은 자원의 공유와 재활용 같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더불어 사는 이웃공동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박미라, 조재순, 2010; 박희정, 조재순, 2009).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협력 등은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덕목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교육에서 '주생활' 영역 역시 인성교육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한 영역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주생활' 영역에서의 인성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주생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자 한다.

V. 결론

이 연구는 2012년 7월 9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국어, 도덕, 사회의 특정 과목에서 강조된 상황에서 가정과목이 인성교육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정교육학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고, 가정교과의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과 인성교육 요소와의 관련성을 조셉슨 연구소가 제안한 덕 목록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고, 과학적 지식의 비중이 높은 식생활 영역의 경우와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파급적으로 가정교과의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덕목과 가정교과의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의 경우 책임, 존중, 배려와 시민의식이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진실성과 공정성 덕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의 경우 모든 덕목이 가정교과의 내용과 성취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분석결과는 조셉슨의 여섯기둥 덕 목록에 기초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하위 덕목 수준까지 분석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개발과 교수설계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육학의 성격에 비추어 가정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교과의 역량을 확인하고 가정과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가정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가정교육학 연구자들이 인성교육의 제 영역과 교육원리에 대한 기초 연구의 수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선보 · 박의수 · 김귀성 · 송순재 · 정운경 · 김영래 · 고미숙(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1-38.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1997). 전환시대 청소년의 소비문화와 인성교육. **바른교육 · 큰사람만들기 제 6회 포럼 자료집**, 1-39.
- 교육과학기술부(2012a).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2b). **밥상머리 교육**. 리플렛.
- 김경숙 · 박미금(2000).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1), 33-45.
- 김미선(2011). **가족식사 참여도가 식습관, 인성특성 및 푸드 네오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교 · 왕석순(2011). 감사성향 함양을 위한 중학교 가정과 인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수업 적용의 효과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2), 17-35.

- 김영미·조재순(200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가족생활과 주거공간 단원의 협동학습 수업 지도안 개발 및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1), 39-53
- 김영주·최정혜·장상욱(2008). 어머니에 의한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휴대폰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3), 163-177.
- 김유니·조재순(2010). 실천적 문제 중심 노인주거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고등학교 기술·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1-19
- 김윤미(2010). **박물관 전통 의생활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조병은(2010). 중학교의 양성평등의식 고양과 집안일 참여를 돕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3), 77-94.
- 김은정·이연숙(2009).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청소년의 자기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4), 35-54.
- 김진아(200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식품기호도와 성격특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태오(2006). 하버마스의 프락시스론과 교육실천. **교육사상연구**. 제20집, 83-113.
- 김태훈(1997). 도덕과에서의 인성교육 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8, 274-314.
- 김현주(2002). 가르치는 일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를 바탕으로 한 가르침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철학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성·김혜영(2007). 중학생의 성격유형과 사회심리적 요인 및 식습관과의 관계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2(5), 511-518.
- 남궁달화 (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 류청산·진홍섭(2006).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덕목의 요인분석. **경인대학교 교육논총**, 26(1), 139-166
- 문성희·채정현(2001). 식생활 단원에 적용한 가정과 실천적 추론 수업이 여고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3), 119-130.
- 문용린·최인수(2010). 창의·인성교육 현장적용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0. 6.4. **교육과학기술부**. 3-23.
- 민경수(2005). **초등학생의 식생활 실태와 인성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라·조재순(2010). 이웃과 더불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주거생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3), 1-18.
- 박미정 (2010). 가정교과에서의 창의·인성 수업모델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제2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66.
- 박효정 외(2001).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1-1.
- 반윤자·김남은·이혜자(2011). 청소년의 전통 의생활 문화 인식 고취를 위한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고등학교 1학년 '가정생활 문화의 변화'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4), 1-17.

- 배세정(2004). **중학생의 식습관과 인성특성 및 학업적응도와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승남 (1998). 21세기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철학적 구상. **한독교육학연구**, 4(1), 67-84.
- 안영희 · 박명숙(2000). 청소년의 과시소비성향과 관련변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1), 21-32.
- 왕석순(2004). 제 7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 내용체계화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2). 13-26.
- 왕석순(2011).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가정과교과 교육과정의 이해**. 고려대학교 교육연수원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자료집.
- 왕석순(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등 가정과교육의 접근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53-80.
- 왕석순 · 김성교(2011). 감사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교육의 인성교육 내용 분석. **실과교육연구**, 17(1), 117-142.
- 유태명(2007).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에 기초한 가정과교육에서의 실천개념 고찰을 위한 시론.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19(2). 13-34.
- 유태명 · 이수희(2010).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 서울: 북코리아.
- 유혜정 · 조병은(2011). 청소년자녀와 부모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교수 · 학습 과정안과 실제 상황적 수행평가 개발 및 적용-부모자녀의 실제대화 UCC동영상을 활용한 대화분석을 토대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1). 31-47.
- 이명준 · 진의남 · 서민철 · 김정우 · 이주연 · 김병준 · 박혜정(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RRC 2011-7-1).
- 이미숙 · 이광우 · 박순경 · 정영근 · 김진숙 · 민용성 · 백경선(2012).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정 · 보완의 방향 및 시안**.
- 이영미 · 이기완 · 오유진(2009). 초등학생의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5(1), 41-51.
- 이은정 · 이형실(2004). 남녀 중학생의 과시소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167-176.
- 이지혜 · 김정숙(1997). 제주도 청소년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61-174.
- 이향자 · 천중(1989). 아동의 식습관 및 식품기호도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85-95.
- 이호중 (2001). **인성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용(2011). 실과교육 식생활 영역에서의 창의 · 인성교육 효과. **실과교육연구**, 17(3), 27-58.
- 정미경 (2003). 실과 가정과 영역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3), 141-161.
- 정주원(2012). 청소년의 윤리적 소비 교육 경험과 윤리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3), 191-208.
- 정태희(2005). 셀프리더십 교육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 32(1), 223-248.

- 조수미(2012).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족돌보기’단원의 수업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조연순·김아영·임현식·신동주·조아미·김인진(1998). 정의교육과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기초 연구 I: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인성교육의 구성요소 탐색. **교육과학연구**, **29**, 131-152.
- 조용주(2007). **가족식사에 대한 인식과 영양소 섭취 비교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정현·유태명(2006). 실천적 추론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23**(3). 139-160.
- 최유현·유태명·문대영·최지연(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09-10-2.
- 허경철·조난심(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 모형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94-1, 56-80.
- 현주 외(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C-2009-09.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최명관(역)(1984).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 Brown, M.M.(1993).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Brown, M.M. & Paolucci, B.(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arr, D.(1997). 손봉호, 김해성 역. **도덕교육론**. 교육과학사.
- Habermas, J.(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 Shapiro. Boston, MA: Beacon Press.
- Habermas, J.(1973). *Theory and practice*. Translated by J. Viertel. Boston, MA: beacon Press.

가정교육학과 인성교육

이 현 아(서울대 연구교수)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 2월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대책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신고조사체계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인터넷중독 등 유해요인대책을 포함하여 7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과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차별성이 있다.

경쟁과 소비가 강조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지나친 일중심, 학업중심, 성과중심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폭력이라는 무서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문제를 계기로 일과 학업, 성과중심의 우리사회 가치구조를 깊이 반성하고 ‘가정’과 ‘인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밥상머리교육’¹⁾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 고시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교육목표에 ‘바른 인성’을 추가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이 매우 반갑다. 그러나 그 속에 가정교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 가정교과가 일상생활의 장에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최선의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실천교과라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다루는 가장 적합한 교과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계기로 가정교육분야의 더욱 활발한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인성

1) 밥상머리교육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으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되살리고, 가족 간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최소한의 가족시간을 확보하자는데 일차적인 의의를 두고 있으며, 또한 지나친 학업중심 교육보다는 인성중심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도 함께 가진다.

교육 관련 연구 성과를 고찰하고, 가정과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의 요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라 생각된다.

연구결과 가정교육학의 제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 적극 활용되거나 교과과정 개정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으며, 이런 점이 바로 향후 가정교육학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인성교육의 6가지 덕목과 가정교과의 교육내용 및 성취기준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자기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의 경우 책임, 존중, 배려와 시민의식이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진실성과 공정성 덕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발달과 가족영역,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의 경우 모든 덕목이 가정교과의 내용과 성취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각 영역별 교육내용에 대해 6가지 덕목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 영역별 가정과 교과에서 6가지 덕목을 어떻게 접목시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 체험과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과 교과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가정과 교과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과 교과의 영역을 통합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연구팀이 마지막에 언급한 가정과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제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정교과의 특성이 일상생활의 장에서 개인과 가족의 실천을 다루는데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도 교사의 자질이 중요하다.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과 함께 구체적인 인성교육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가정과교육’이 담당해야할 역할이 크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교육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업성취중심의 교육정책에서 인성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과과정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인성중심 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찾아볼 있다. 또한 2009년 교과부에 ‘학부모정책팀’이 신설되고 2010년에 학부모지원과로 승격되는 등 학부모지원정책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교육의 수요자인 가정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2011년 교과부가 정책중점연구소 중 하나로 ‘학부모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한 것도 수요자중심의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현재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가정내 인성교육 회복방안’을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도 ‘가정’과 ‘인성’을 교육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정교육학과 인성교육’ 연구도 최근 교육정책의 흐름을 반영한 연구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가정’과 ‘인성’을 강조하는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까지 제안될 필요가 있다. 연구와 현장, 정책이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정교육학 전공자들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가정과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보여준 본 연구를 시작으로 가정과교육이 인성교육의 중심교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